캄보디아 취약계층에 희망을…“당신은 무한 가능 존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③ ‘지구촌 생명살림’ 캄보디아 현장 上

2024년부터 해외 구호 사업 지속
3월 19일, 시엠립 초등학교·사찰 등에
식음료·의료품·교복 등 1억원 상당 물품
일면 스님 “작은 도움, 꿈 밑거름” 기대
시엠립 주정부서 감사 인사 전하기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3월 19일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리엉다이 초등학교에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학생들에게 교복과 각종 학용품을 전달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원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에서 보내 준 선물들은 물건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계속하기 힘들까 봐 걱정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됐습니다.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준 그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리엉다이 초등학교 6학년 남모니랏 학생이 한국 불자들이 지원한 학용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내 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멋진 어른이 되겠다는 남모니랏 학생의 약속에 리엉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400여 명이 끊임없는 박수를 보냈다. 나눔의 마음이 또 다른 나눔의 다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 이하 현대불교)은 3월 19일 캄보디아 시엠립 리엉다이 초등학교에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원을 받는 이들과 전하는 이들이 함께 교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리앙다이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세계행복나눔태권도에서 후원한 태권도복을 입고 즐거워하고 있다.



시엠립 주정부는 일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명우 대표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나눔이 앞으로 더욱 크게 자라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기념식수도 진행됐다.

전달식이 진행된 리엉다이 초등학교는 1995년 개교 당시 마을 내 소규모 시설에서 시작됐으나 인근 사찰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사찰과 학교는 담장 없이 이어져 있으며 물길 위 작은 다리를 통해 오가는 구조다. 사찰은 그간 학생들의 교재와 학용품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사찰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교육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인근 2개 마을의 학생 389명이 재학 중이며 취학 아동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 한 동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기에는 빗물이 유입되는 열악한 상황인 데다, 앙코르와트 문화재보호구간인 ‘압살라(Apsara) 규제’로 인해 건축과 보수가 쉽지 않은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대부분 학생들이 빈곤 가정 출신이고,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생명나눔과 현대불교가 올해 리엉다이 초등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다.

이날 생명나눔과 현대불교는 학교와 사찰에 쌀 1000kg, 생수 200팩, 라면 100박스, 정관장 1세트 등을 전달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 460벌, 청소년 영양제 16박스, 태권도복 및 태권도 티셔츠 57벌을 후원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빵과 우유 450세트가 제공됐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33년간의 활동을 떠올리며 “부처님 자비와 나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며 “오늘의 작은 도움이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한 대표는 “비록 준비한 물품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캄보디아의 아픔이 치유되고 아이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한국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평화와 희망의 길에 든든한 도반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띠땅코스 리엉다이 초등학교장은 시엠립 주정부를 대신해 일면 스님에게 꾸준한 캄보디아 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앞서 오전에는 시엠립 소재 쁘레앙 뜨루엉 사찰에서 전달식이 열렸다. 쁘레앙 뜨루엉 사찰은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자 교육과 복지, 정신적 의지처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스님 16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찰의 보호를 받기 위해 출가한 동자승 30명이 주민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날 기증식 참여한 어린이 150여 명을 비롯한 지역민 400여 명 역시 대부분이 정부에서 증명한 취약계층이다. 생명나눔과 현대불교는 사찰과 주민들에게 쌀 3000kg, 생수 400팩, 라면 100박스, 각종 의료품 600여 개를 전달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영양제 10박스와 티셔츠 및 바지 150개, 교복과 학용품 140세트를 지원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빵과 우유 400세트를 제공했다.

일면 스님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염주를 끼워 주며 귀한 인연을 소중히 이어 부처님 자비와 나눔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길 기원했다. 스님은 “캄보디아는 오랜 불교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 우리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받드는 일불제자”라며 “앞으로도 자비와 보시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뜻깊은 인연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대표는 전쟁으로 상처 받은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보듬어 준 쁘레앙 뜨루엉 사찰 스님과 관계자에게 숭고한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어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을 언급하며 “국경을 넘어 하나의 인연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먹벙 스님은 일면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일면 스님은 주지 스님에게 1000달러(한화 150여 만원)와 저서 〈행복한 빈손〉을 선물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수로 마무리됐다. 기념식수는 나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과일로 알려진 잭후르츠 나무가 심어졌다. 이번 나눔이 앞으로 더욱 크게 자라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일면 스님은 “나눔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어린 나무가 자라 울창한 그늘을 이루듯 오늘 심은 희망 역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더욱 단단한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은 생명나눔과 현대불교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나르는수레꾼을 비롯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한마음선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리더스포럼 등이 후원했다.

생명나눔은 2024년부터 캄보디아 내 사찰과 고아원에 약 110만달러 규모의 의료품과 생활물품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현대불교와 함께하며 지원을 확대, 시엠립 지역을 중심으로 약 14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앙코르톰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장기적인 협력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휘어버린 등만큼
잠들지 못하는 하늘이의 밤”

뇌병변 하늘이, 척추 90도 휘어 밤마다 고통…
척추보조기 교체 시급하지만 재활·수술비 마련도 막막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